

영국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신전략 분석

New Salt Strategy In U.K.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3년 1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반성인의 나트륨섭취 권고량을 2000mg에서 2000mg 미만으로 낮추며 어린이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WHO는 “높은 나트륨 수치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혈압상승의 한 요인이며 심장질환과 뇌졸중 및 당뇨, 암, 만성호흡기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다른 모든 질환을 합한 것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요인”이라며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2000mg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칼륨을 매일 3510mg 이상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나이와 신체 크기, 에너지 필요량 등에 따라 일일 최대 나트륨 섭취량

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대수준으로 2011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791m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2000mg)의 약 2.4배이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대 질환의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역시 2005년 1만 4066명에서 2010년 2만313명으로 늘어났고, 보험급여 규모도 같은 기간 2조5500억원에서 4조91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¹⁾.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3월 산학연 및 소비단체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가 함께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창설²⁾하고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년이 경과한 지난 3월 13일에는

1) [http://www.foodtoday.or.kr/news\(2013.02.02 보도자료 재인용\)](http://www.foodtoday.or.kr/news(2013.02.02%20보도자료%20재인용)) - 홈페이지 접속일: 2013.04.04, 16:30

2)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878g으로 나타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나트륨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 국민생활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2012년 3월 발족되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과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박수홍 명예홍보대사 등 식품관련 협회·단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운동본부의 발족 이후 지난 1년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필요로 하며 2020년까지 국민이 섭취하는 나트륨 20% 낮추기를 목표로 제조업체, 음식점업과 더불어 지자체 협력 및 정부부처의 공조체계 등의 형성을 통해서 국민건강과 행복창출에 기여하려는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한 최근 발표된 영국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신전략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민건강생활증진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신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2. 영국의 나트륨섭취 저감화 신전략

영국 보건부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저감화시키는 신전략을 발표³⁾하였다. “공중보건책임정책(The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의 식품네트워크에서는 식품섭취로 인한 나트륨 섭취량을 6g으로 정하는 새로운 나트륨 전략을 선보였다. 식염 목표치를 수정하여 식품업계

가 조리법을 바꿀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명메뉴의 최대 나트륨 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급식(Catering) 및 테이크아웃 시설을 독려하고 국민들이 나트륨 저함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하였다(예: 프로모션, 기타 활동). 향후 더 많은 식품 업체들이 나트륨 저감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공개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를 위한 신전략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 2012년 이후의 영국의 나트륨 저감화 신전략의 배경

나트륨 소비량 감소는 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 발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식품네트워크 책임정책(Responsibility Deal Food Network)의 우선 사항이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의 나트륨 소비는 꾸준히 감소해왔으며(전체의 15%) 2008~2011년 사이에 약0.5g 감소하였다. 주식에 들어가는 나트륨은 40~50% 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2007년부터 저염화 대상 음식에서 1100만 킬로그램 이상의 나트륨을 줄였다. 그러나 평균 나트륨 소비량은 약 8.1g/일로 여전히 높아서(2011년) 1인당 6g의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

식품네트워크(Food Network)는 저염화의 가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의 행동 전략을 개발하였다. 식품네트워크의 고위급은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salt-strategy-aims-to-help-reduce-our-salt-consumption-by-a-quarter> (2013.03.22. 공개자료 재인용) - 홈페이지 접속일: 2013.04.04. 16:30

영 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가 포함된 세부 전략에 동의했다.

- ① 재규격화
- ② 급식업체 부문의 추가 행동
- ③ 행동 변화
- ④ 저염화 참여확대

각 활동 분야의 세부사항을 아래에 요약하였다. 업무에 대한 근거와 제안된 기간은 세부내용에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와 기존 파트너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실천서약을 요약한 경로도를 [나트륨 저감화 신전략 세부내용]에 제시하였다.

① 재규격화 체계

기존의 책임정책(Responsibility Deal) 저염화 실천서약들을 보완하기 위해 3가지의 새로운 재규격화 실천서약을 개발⁴⁾할 것이다. 이 새로운 실천서약들은 식품 산업의 모든 분야(제조, 음식 공급, 소매)가 노력할 목표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2단계로 개발된다.

급식 업체를 위한 1인분 최대 나트륨 목표 – 이것은 업무의 1단계가 되고 새로운 실천서약 개발을 수반한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에 대해서 급식 업체를 위한 1인분 기준의 최대 나트륨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급식 업체에 고객이 먹는 최종 제공 요리에 기반한 목표를 만족시킬 것을 처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저염화 목표 재검토 – 2단계 업무는 모든 2012년 나트륨 목표⁵⁾에 대해 적절한 곳의 재검토와 재교정을 하고, 목표에서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고기 추출물(육즙, 고품 육수, 부용 등)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추가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다음을 포함할 새로운 실천서약의 기준을 만든다.

- 모든 업체가 설정기간 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한된 수의 필수 목표
- 개개의 업소가 노력하기 위해 선택했을 구체적인 우선 범주에서 남아 있는 나트륨 목표들을 다루는 업체별 목표. 업소가 목표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날부터 설정 기간 내에 이 목표들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성을 위해 전념할 목표의 수를 늘릴 것을 권장한다.

신제품의 최대 나트륨 함유량(모든 부문에 해당⁶⁾) – 이 두 번째 업무 단계 동안에 개발되고, 별도의 실천서약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

2013년 봄에 1단계(음식 공급자를 위한 1인분 최대 나트륨 목표) 완료, 2013년 말까지 2단계(기존의 저염화 목표 재검토와 신제품의 최대 나트륨 함유량)에 대한 개발 작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1~2단계 개발 과정과 기간의 세부사항을 [나트륨 저감화 신전략 세부내용]에 제시했다.

4) 이 실천서약들은 F2 저염화, F5 a-c 나트륨 공급 실천서약임.

5) <https://www.wp.dh.gov.uk/responsibilitydeal/files/2012/01/Salt-Targets-for-Responsibility-Deal.pdf> (재인용)

6) 식품제조업체, 음식점, 급식 업체 등을 포함함.

② 급식업체(음식공급) 부문의 추가 행동

보건부는 영국영양재단(British Nutrition Foundation), 영국 접객업 협회(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트륨 과다 소비와 건강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품접객(음식점, 급식소 등) 부문과 나트륨 첨가 최소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중점을 둔 적합한 기본 훈련 과정(들)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이것은 요리사가 대상이고, 급식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요리사가 이용할 수 있다.

③ 행동 변화

모든 부문의 조직이 헌신하게 하고, 저염 습관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소비자 행동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입증하도록 실천서약을 개발한다.

6월까지 실천서약을 개발하고, 여러 파트너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도록 광범위한 활동을 다룬다. 약속의 예는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제품 이상으로 저염 제품 홍보, 구체적 장려책(가격 할인/쿠폰 등), 억제책 - 예, 몸에 좋은 항목을 메뉴의 기본 사항으로 제공한다(이렇게 하면 고객은 몸에 덜 좋은 대안을 특별히 요청하게 된다). (체인지4라이프(Change4Life)를 통한 것을 포함한) 고객을 겨냥한 교육과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저염화 참여 확대

새로운 저염화 파트너 - 현재까지 저염화에 참여한 책임정책 파트너들을 위한 협의와 한 걸음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2013년에 개발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는 파트너들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이러한 업체들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들이 2013년에 개발될 재규격화 실천서약으로의 이동을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 기간(예, 가입 후 2~3년) 내에 2012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저염화 실천서약 F2를 수정한다.

보건부는 모든 부문의 업체와 계속 관계를 맺고, 기존 및 새로운 실천서약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책임정책 저염화 실천서약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추가 단계들을 취하고 있다. 지방 파트너와의 작업, 기업대기업의 멘토링 장려가 포함된다.

2) 영국의 나트륨 저감화 신전략 세부내용

영국의 나트륨 저감화 신전략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배경과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식단에 대부분의 나트륨을 제공하는 식품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저염화 목표 개발을 포함하는 초기 저염화를 이행하는데 사용된 방법은 아주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됐고 전 세계가 따라 했다. 그렇지만 저염화가 진행되고 조금더 도전적이 되어 갈수록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네트워크 책임정책의 고위급 운영 위원회(HLSG)는 여러 전략 주제 전체의 균형

잡힌 행동을 장려하는 2012년 이후의 전략에 동의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진전과 차후 행동을 위한 기회를 모두 고려한다.

위에서 약술된 제안들은 단기·중기·장기로 진행되도록 개발되었다. 주제별 전략 제안의 근거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① 재규격화

재규격화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되었지만 식품산업 전반의 발전이 혼합되었다. 일부 음식의 나트륨 함유량은 여전히 높고, 일부 범주 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장래 행동을 위한 기회는 식품 부문, 식품 생산, 기술 및 소비자 수용성 문제, 기업 내의 가용 자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규격화 조치는 적당히 도전적이고 광범위해져야 한다. 또한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시작점과 기술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허용해야 한다. 위에서 개술된 제안들은 대중 건강 이익을 최대화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고 가급적 많은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HLSG에서 고려했다.

[1단계]

급식 업체 음식은 음식점 음식보다 더 짠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고 인기 음식 1인분에 대한 새로운 최대 목표를 개발해서 급식업체 부문의 저염화와 대중 건강에 대한 기여를 신장시킨다. 새로운 목표는 기존의 나트륨 공급 실천서약(F5a-c)를 보완한다.

[2단계]

13항에 약술된 문제들로 비춰보면 모든 현행 목표에 대한 검토만이 재규격화와 대중 건강 이익을 위한 최대 기회가 발생할 곳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수목표와 업체별 목표의 혼재를 식별하여 각각의 특정한 기업이 대중 건강 증진에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체 책임정책 파트너의 재규격화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사업 모델에 맞는 더 폭 넓은 재규격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2013년 말까지 새로운 목표들을 개발한다. 이 기간은 2012년 목표를 아직 채우지 못한 현재 파트너들이(새로운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여유가 있다. 이것은 좀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파트너들이 다같이 다음 단계의 재규격화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앞으로 갈 기회를 얻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이것이 2012년 이후 저염화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신한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재 판매가중 평균과 최대 목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제품의 최대 목표를 개발할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목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나트륨 함유량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서 신제품의 맛 프로필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갖는다. 이는 소비자의 미각 변화를 장려하고 상당히 낮은 염도의 제품에 대한 선호를 촉진할 기회를 준다.

② 재규격화 조치 일정

목표 개발 절차는 정보를 모으고 장래의 재규격화 기회를 논의하는 일련의 범주별 이해관계자 회의의 수반한다. 이 정보는 그 후에 기존 목표를 알맞게 설정하거나 재교정하는데 사용된다.

목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나 반드시 무역 협회나 대표 NGO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정에 영향을 미칠/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관심을 가진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정보를 보낼 것이다.

대체적인 회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3월 /4월: 급식업체를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에 대한 1인분 기준의 최대 나트륨 목표

2단계 - 5월/ 6월/ 9월: 2012년 목표 재교정, 고기 추출물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신제품에 대한 최대 목표 설정.

일시와 각 회의에서 고려되는 식품 범주의 추가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HLSG가 6월에 1단계 목표를, 12월에 2단계 목표를 고려하고 승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모범 사례

보건부는 실천서약이 미치는 영향의 최대화를 돕기 위해 여러 제품에서 달성했고 기업들이 열망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만들 것이다. 이 정보는 모범 사례를 장

려하고 식품 산업 전반에 더 폭 넓은 재규격화 노력을 조장하는 무역 협회가, 그리고 공급 업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업이 실천서약을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분야의 재규격화 노력에 중점을 두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급부문의 추가 활동

요리사는 보통 메뉴와 조리법 개발, 준비 과정에서 요리 재료와 조미료 공급에 책임이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 나트륨 과다 소비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훈련과 나트륨 첨가 최소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장려하여 전문적 수준과 개인 수준 모두에서 급식 업체 종사자의 행동 변화를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 적합한 훈련 과정(들)을 제공하면 기업이 나트륨 공급 실천서약 F5a에 대한 훈련 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나트륨 공급 실천서약(F5a-d)을 위해 기업이 행동을 지원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 사이에서 이러한 실천서약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할 가능성을 갖게 한다.

⑤ 행동 변화

건강은 모든 사람의 일이며, 모든 사람은 나트륨 섭취 감소를 돕는 일에서 한 몫을 할 수 있다. 재규격화가 나트륨 소비를 상당히 줄였긴 하지만(그리고 알맞은 고객 선택이 그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6g 섭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과정도 고객의 큰 행동 변화를 필요

로 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트륨 과다 소비와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나트륨 섭취량 감소의 동기를 부여 받는 것, 나트륨 함유량이 더 낮고 식품 권고사항을 충족시키는 더 건강한 식품물을 계획, 구매, 준비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식습관에 대한 조언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1월에 착수한 “음식을 현명하게 - Be Food Smart”는 영양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체인지4라이프(비만 극복 사회 마케팅 캠페인)를 선택했다. 나트륨과 건강의 연관성, 조리법, 식품 라벨 사용법에 대한 조언(“나트륨을 보라 - Watch the Salt”)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동기과 저염 식단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밟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식품 산업과 NGO는 소비자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공중 보건 메시지 홍보, 지속적인 식습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언 제공, 폭 넓게 가용한 저염식품 식별 및 제조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고객 행동 실천서약의 개발은 이러한 행동을 장려하고 경과를 더 빠르게 만드는 기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⑥ 저염화 참여 확대

책임정책 일선 업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책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장 범위와 대중 건강 이득을 모두 최대화하도록 나트륨 실천서약 참여 홍보를 위한 보건

부와 대기업의 연합을 처음에 우선시해야 한다. 재규격화에 대한 추가 실천서약으로 옮겨가기 전에 신규 파트너들에게 2012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 사항을 주는 새로운 실천서약의 제공은 신규 기업의 재규격화 참여를 장려하고 더 공평한 경쟁 무대 창출을 돕는다.

딜(Deal)이 대기업 사이에서 우선 진전을 보이는데 성공했지만 대중 건강에 대한 이득을 최대화하려면 식품 산업 전반과 모든 규모의 기업의 나트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소규모 기업은 특히 가정 식품 전문 매장과 주류 판매 허가점을 통해서 고용하고 접대하는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이 지역 당국으로 이동하고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Public Health England)가 설립됨에 따라, 보건부는 자원을 모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딜(Deal)이 담당하는 나트륨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고려했다. 보건부는 도구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협회, 지역 당국, 지역 기업, 무역 기구,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기타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도구는 직원과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지역 기업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지역 당국과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기타 단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⑦ 모니터링과 평가

책임정책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실천서약들에 대한 투명성과 기업의 진전을 입증한다. 보건부는 전국 식습관 및 영양 설문조사(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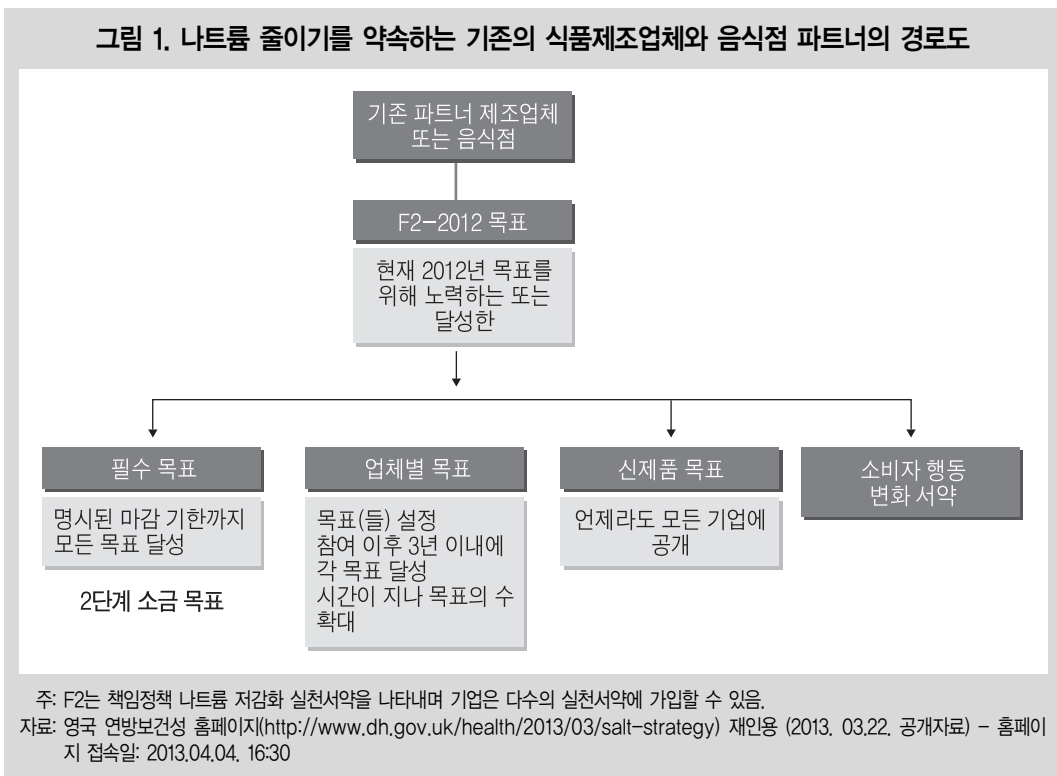
Diet and Nutrition Survey)와 소변의 나트륨 조사, 그리고 가능한 시장 데이터의 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경과를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1~3]을 통해서 영국내 나트륨 줄이기를 약속하는 기존·새로운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 파트너의 각 경로도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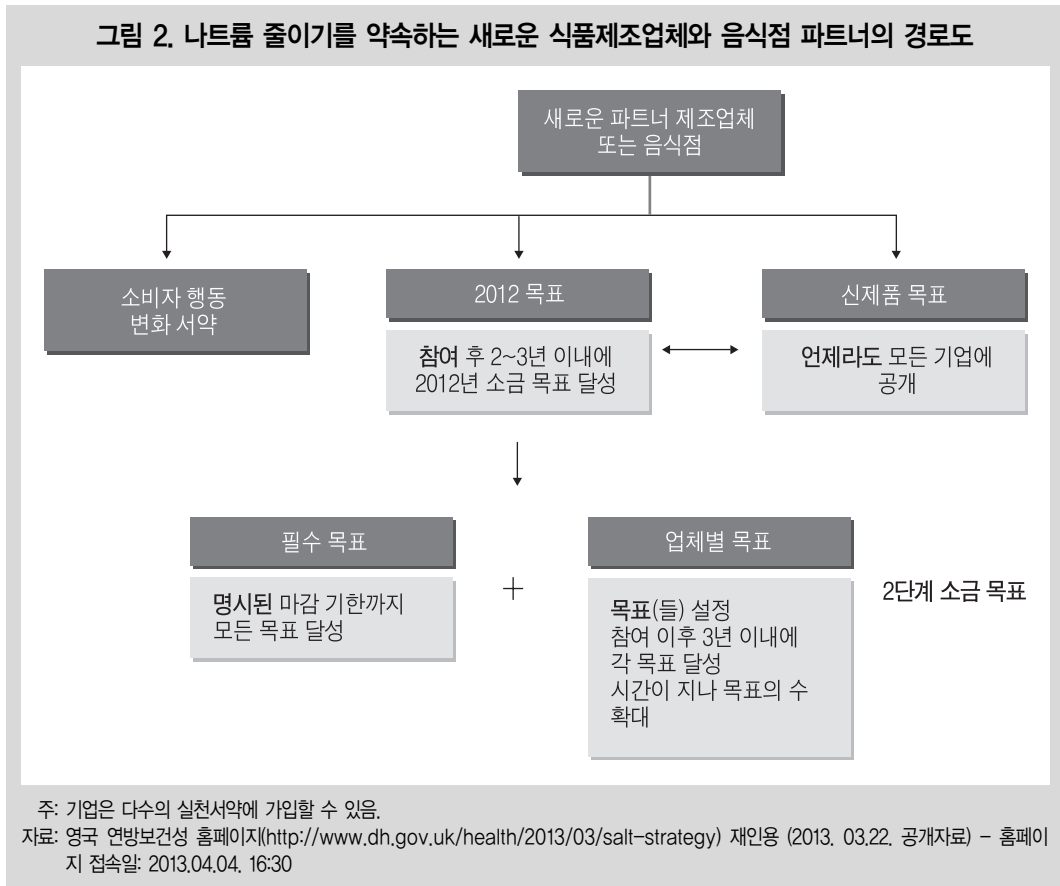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나트륨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경각하고 섭취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영국의 신전략과 더불어 지난 2013년 2월에 발표된 스위스의 “나트륨 저감화 전략 2013~2016”^{7) 8)}을 참고하

그림 1. 나트륨 줄이기를 약속하는 기존의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 파트너의 경로도



7) 최근 유럽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자국의 연방보건청(BAG)을 통해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5g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나트륨 저감화 전략 2013~2016”을 발표(2013.02.25)하였음. BAG에 따르면, 스위스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9g인데, 스위스 당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약 16% 감소한 8g 까지 낮출 계획이었음. 하지만 BAG는 비록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8g”이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나트륨 저감화 전략 2013~2016”을 통하여 스위스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단계적으로 WHO의 권고치인 5g 이하로 줄일 예정이라고 공개하였음. 스위스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2016년까지의 전략 목표 및 대책은 개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나트륨 줄이기를 약속하는 새로운 식품제조업체와 음식점 파트너의 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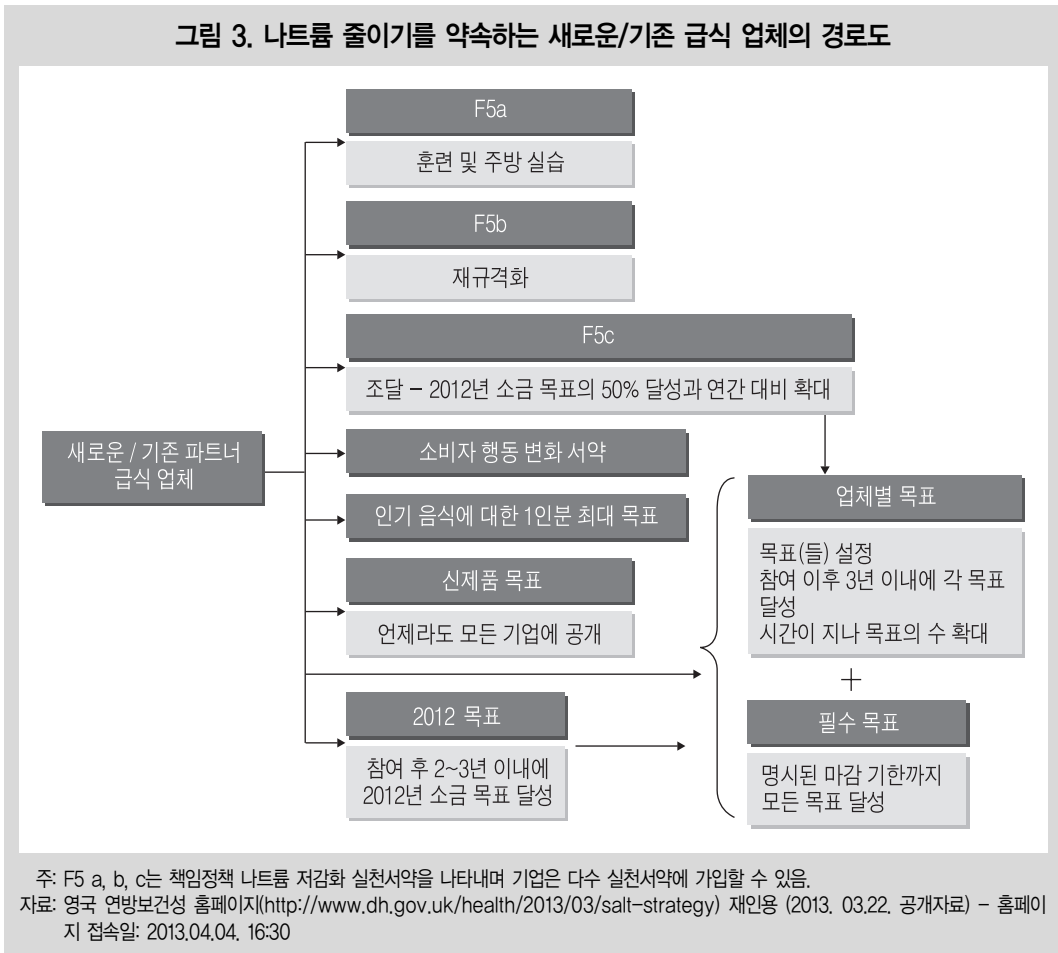


여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저감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

1. 필요한 기초 데이터 준비,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 및 개선
 2. 스위스 국민의 인지 및 계몽을 통한 나트륨 소비량을 저감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3. 산업계와의 협력으로 가공식품 및 요식업체 요리의 나트륨 함량 저감화
 4. 스위스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조치의 국제적 동향과의 일치
 5.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 8) http://www.bag.admin.ch/themen/ernaehrung_bewegung/13258/13744/index.html?lang=de
(2013.02.25. 공개자료 재인용) -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3.04.04. 16:30

그림 3. 나트륨 줄이기를 약속하는 새로운/기존 급식 업체의 경로도



주: F5 a, b, c는 책임정책 나트륨 저감화 실천서약을 나타내며 기업은 다수 실천서약에 가입할 수 있음.
 자료: 영국 연방보건성 홈페이지(<http://www.dh.gov.uk/health/2013/03/salt-strategy>) 재인용 (2013. 03.22. 공개자료) - 홈페이지 접속일: 2013.04.04. 16:30